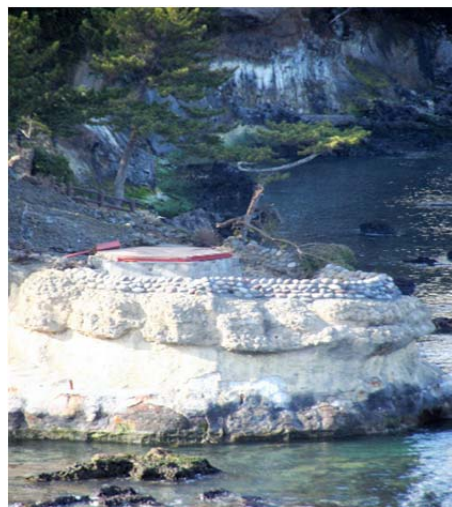


茨城県 天心記念五浦美術館

이바라키현 텐신기념 이즈라 미술관

대지진의 영향으로 휴관 중이던 이바라키현 텐신기념 이즈라 미술관도 활기찬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메이지 시대의 저명한 미술사가이자 미술 교육자로 일본 미술의 근대화에 힘써온 오카쿠라 텐신을 기념하여 설립된 이즈라미술관은 이즈라 출신 화가들의 작품과 일본화 중심의 전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카쿠라 텐신은 기타이바라키시 이즈라의 롯카쿠도에서 예술과 문학의 사색에 잠기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지진으로 인해 롯카쿠도는 흔적만 남아있었습니다.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문화재가 소실된 현장에서 안타까움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바라키현 대학에서 재건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이즈라 미술관도 다시 개관하였고, 2012 년 12 월 4 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기획전은 카사마 출신의 일본화가 키타무라 부잔의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키타무라 부잔(1876 년~1942 년)은 요코야마 타이칸, 시모무라 칸잔, 히시다 슌소와 더불어 이즈라를 대표하는 화가입니다. 이번 회고전은<역사화><화조도> <불화><장벽화>로 나누어 부잔의 초년부터 만년까지의 대표작 70 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첫공개되어진 화려한 장벽화속에 숨겨진 공작과 까마귀의 이야기는 부잔의 빛나는 아이디어와 재치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대지진후 처음으로 기획된 뜻깊은 전람회에서 향토출신작가 키타무라 부잔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화풍의 기운을 받아 지치고 피곤한 일상에서 조금은 멀어질수 있었습니다.

이바라키현 텐신기념 이츠우라미술관 0293-46-5311



<흔적만 남아 있는 롯카쿠도>



<이바라키현 텐신기념이즈라미술관>



<키타무라 부잔 전시회 팸플릿>